

일본의 지도사업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영향분석:
이와테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의 현지사례를
중심으로

Japan's Agricultural Extension and the Impacts of
Rural Development

장 먼 주*
Myun Ju Jang

Abstract

The study uses case study to explore the relations between the Living Improvement Project as a cooperative agricultural extension since 1948 and the Rural Tourism Development as a community development since 1992. A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sion agent's field activity and tourism impacts to be supported by means of government policies during fifty years.

주요어(Key words) :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농촌지역개발(Community Development), 일본(Japan)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생활지도사. e-mail: jmj@rda.go.kr

1. 머리말

1.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일본의 지도사업 체계는 1945년 7월 15일 농업개량조장법에 따라 제정된 협동농업보급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가 농업의 개량 및 농민생활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지자체(도도부현)와 농림수산성과 협력하여 실시한 정책사업이다. 협동농업보급사업 전에는 메이지 시대에 지정된 농회법에 따라 농회기술원이 실시하는 지도가 시행되었으나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지도보다 전쟁에 사용할 식량공출 등에 대한 사무를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과 함께 1945년부터 1950년 초반까지 미국의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하에서 식량증산, 산업부흥, 지방계획 책정, 산업진흥을 위해 경제력 증가를 위한 개발사업이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1948년 이후부터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개된 생활개선보급사업이 현장에 어떠한 형태로 파급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조사, 생활개선보급원의 인터뷰조사를 통한 현장조사, 생활개선연구회, 농촌 등의 활동현황,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영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는 츠크바시의 생활기술원 나미가와 원장을 비롯하여 관련 담당자 2명,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퇴직한 생활보급원(우리나라의 생활지도사)

3명의 인터뷰조사, 구마모토현의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3. 연구 대상설정이유

본 연구는 일본의 지도사업인 협동농업보급사업을 1945년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변천을 통해 활동내용에 따른 현지사례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1992년부터 시작된 농촌관광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아마구치현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아마구치현은 생활개선그룹활동으로 전국 10위안에 들고 있으며 농촌관광 및 농촌지역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선정하였다.

2. 본 론

2.1. 농촌여성과 관련된 정책사업

농촌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책사업에서 그 원류를 찾아보면 1945년에 시작된 생활개선보급사업과 공동농업보급사업이 출발점이다. 이후 1975년에 「국제여성의 해」가 열리고 농림수산성에서 여성문제 연락의회를 설치하게 되며 1978년 농산어촌 여성대책 전임담당자로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에서 과장보좌 여성대책 담당을 설치하게 된다.

1987년 「농산어촌 여성의 날」이 채택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여성에 관해 다양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먼저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는 농산어촌 여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여성·생활과로 개칭하여 조직을 바꾼다. 1992년에는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

전(2001년 새로운 농산어촌의 여성)이 발표된다. 또한 「남녀공동참가계획 200년 플랜-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 촉진에 관한 2000년도까지의 국내행동계획」도 책정되어 이들의 비전에 따라 농산어촌의 여성능력개발, 지위향상에 주안점을 둔 시책이 추진된다.

1999년에는 「남녀공동참가계획 사회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실시되고 여성의 참가촉진과 관련하여 조문에 명시되었다. 이 2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농산어촌 남녀공동참가 추진지침」, 2000년에는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표 1〉 농업·농촌의 남녀평등 실현을 통한 구성상황

연도	구성의 상황
1945	● 농가, 농촌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생활개선보급사업」을 시작. 「공동농업보급사업」으로 현재에 이른다.
1975	● 국련의 제창에 따라 「국제여성의 해」 ● 「국제여성의 해 세계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 ● 농림수산성이 「여성문제연락의회」를 설치
1978	● 농산어촌의 여성대책의 전임담당자로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에 과장보좌(여성대책담당) 설치
1987	● 농산어촌의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 사회적인 기운을 양성하고 고취 시키기 위해 매년 3월 10일을 「농산어촌 여성의 날」로 정하였다. (1999년부터 「농산어촌 여성의 날」로 명칭변경)
1990	● 농산어촌 여성대책의 종합적인 실시를 위해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를 여성·생활과로 조직개편
1992	●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새로운 농산어촌 여성 2001년을 향해)」를 책정
1996	● 「남녀공동참가 계획 2000년 플랜-남녀공동참가 사회의 형성촉진에 관한 2000년도까지의 국내행동계획」을 책정. 비전 및 방향에 대해 농산어촌의 여성능력개발, 지위향상에 주안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1998	● 농산어촌 남녀공동참가 사회의 실현을 위해 가이드라인으로 남녀공동참가의 지표, 목표의 책정에 관한 통달을 도도부현 등에 통지(이를 받아 2001년도중에 전도도부현에서 지표를 책정)

연도	구성의 상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공동참가 사회기본법」 시행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시행. 여성의 참가촉진에 대해 제26조에 명기 • 상기 2기본법의 취지에 대한 시책의 전개를 위해 「농산어촌 남녀 공동참가 촉진지침」 책정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을 책정

주)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농가농촌생활편람」(1986년 4월 발행)행 농가농촌생활문제 연구회) 등 구주농정국 내부자료를 참고로 필자작성

2.2. 일본 지도사업의 전개과정

일본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지도의 중심을 농산물에서 사람으로 전환 (스스로 생각하는 농민육성)」, 「농가생활개선」, 「농촌 청소년의 육성」을 통하여 농정을 「농촌지역주민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근대농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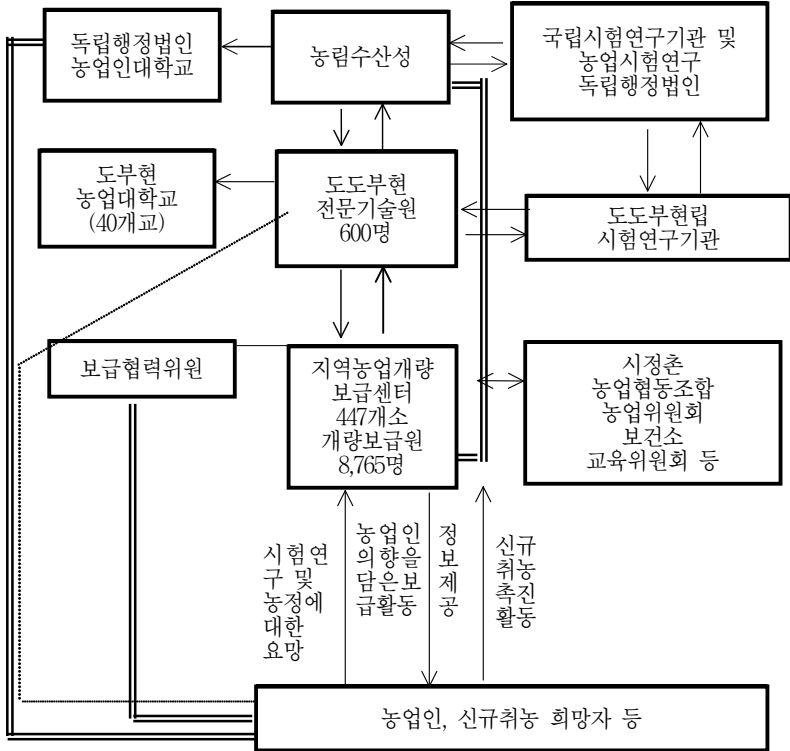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이념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이전부터 해오던 지도가 통제업무와 관련되어 순수한 기술지도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반성으로 농민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농가경영, 농촌을 확립하는 농촌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은 지도의 내용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 농업기술지도, 농촌청소년지도, 농민생활에 관한 기술원조가 보급사업의 3가지 핵심으로 다루어진 것은 개개인의 인간평등으로 신보급사업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전의 농정은 생산이 향상되면 생활도 향상된다는 생산중심의 사고였으나 농가나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문제를 시점에서 접근한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생산향상과 생활향상은 수평선상에 위치하며 생활문제 해결이나 향상이 생활 활동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쟁 후 식량부족문제, 실업문제가 최대과제였던 혼란의 시기에 식량증산과 농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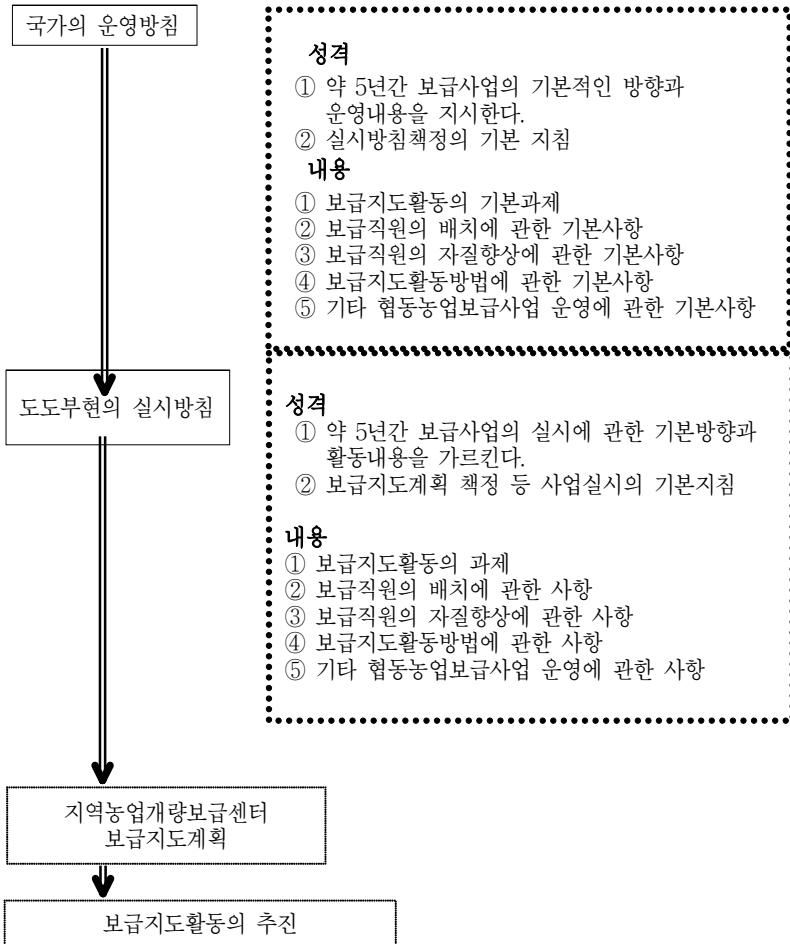
주화를 농정과 국가전체의 과제였다 .

〈그림 1〉 일본 지도사업(협동농업보급사업)의 체계



주) 수치는 204년 4월 1일 현재(보급과 조사)

〈그림 2〉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지침」과 「실시방침」의 플로차트



2.3 시대에 따른 협동농업보급사업의 변천

2.3.1. 1950년대 이후부터 생활개선보급사업

1955년부터 1965년은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고 농정면에서 농업기본법이 제정되고 농업의 선택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생활개선활동은 지역농민 지도활동의 확립기이다. 지역농민 지도속에 그룹지도가 활발히 실시되었다.

생활개선그룹 지도의 목적은 그룹 육성과 함께 핵심이 되는 소수의 리더를 육성하여 그룹화하고 상호학습, 상호개발하에 기술을 습득시켜 육성한 인재나 그룹의 리더로 활용하여 지역으로 확산시켜 갔다.

이러한 형태를 지역농민지도 활동방식이라 하였으며 1945년에는 생활개선협력위원을 위촉하여 위원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 그룹이 생겨났다. 1955년에는 생활개선실험시설 설치, 농가생활기술형 전연구와 전문기술원의 적용실험, 전문가를 섞은 연락연구도 실시되었다.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1948년에 각 도부현에 3명의 생활개선 담당을 두고 지도했다. 1949년에 전국에서 개량 보급원 자격 시험이 시행되고 생활개량 보급원 668명이 합격하여 이 가운데 262명이 정식으로 생활개량보급원에 임명되었다. 여기에 개량보급원 지도를 위해 전문기술원(이 중 생활관계 9명)이 임명되었다.

당시 생활개량보급원이 주로 하는 일은 농민들에게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계몽하였는데, 식량증산에 심혈을 기울인 당시 농촌상황에서 생활개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부엌과 아궁이 개량, 식생활 개선, 서양복식 작업복 보급 등이 주된 지도 내용이었다. 보급방법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초록자전거”로 각 농가마다 직접 나가서 순회지도를 하였고 이외 지

역은 생활개선 그룹을 대상으로 지도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생활개량보급원의 수기에서”에 수록된 히로시마현 오가와 테루코씨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의전지구는 제 담당지구인 9개 마을의 하나로 농가호수는 697호, 1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59a로 나가노현 평균경지면적을 밀돌고 있다. 적은 경지면적에서 수도작, 양봉, 과수를 중심으로 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1960년부터 1962년 2년간에 전업농가는 245호에서 158호로 감소되고, 87호, 12.2%가 겸업농이며 이 중 제2겸업농이 175호에서 286호로 111호, 16%가 증가하였다.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농가의 합계는 539호로 농가 총 호수의 17.3%에 해당하며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주부농업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러한 팽목할 만한 경제의 변화속에서 이 지구의 농협이나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2년간 제 체험을 통해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신임 생활개량보급원으로 이 지역에 온 것이 1960년 2월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었는지 여성의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한 것을 느껴가면서 가정텃밭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해 가는 여성학습그룹을 농업개량보급원의 협력을 얻어 몇 번이나 가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룹원 6명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남자 한사람 뒀을 해온 채소밭을 보고 마을안에서 가정텃밭을 중심으로 한 학습그룹이 그해 가을부터 생겼습니다.

나는 이들 그룹활동에 농업개량 보급원의 농업에 관한 학습과 아울러 생활문제도 조금씩 추가하면서 그룹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러던 중 나는 주로 식사문제, 바른 영양섭취, 농법기의 영양섭취 등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이중 하나의 회원 22명의 그룹에서 농번기 영양문제를 하려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재료만 있으면 농번기 주부의 고민은 상당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동으로 부식재료만을 구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반성회가 열려 느낀 점을 들어보니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 저녁식사 걱정이 없어져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옳까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생활개량보급원의 수기에서),

『당시 생활개선보급원은 각 군에 1명씩 배치되고 현에 16명의 생활개량보급원이 각 군을 담당으로 하여 처음 농촌에 들어갔다. 나도 1950년 8월에 첩첩산중이던 가미이시 농업개량 출장소에 근무했다.

당시는 전후 혼란기로 농가생활은 몰자부족으로 빈곤하였고 지주, 조작, 본가, 분가, 부모, 자식 등의 관계가 복잡되어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속에서 주부들은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쉽게 밖으로 표출할 수 없었고 관혼상제는 허례허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은 겉과 밖의 차가 심했다.

부임해서 2개월이 지난 어느날, K마을의 초등학교생에게 트러홈이 많다고 들었다.

조속히 마을 강습회에 나가 부모를 관찰하니 눈이 빨강게 충혈된 사람이 많았다.

원인은 연통이 없는 부엌과 전통식 난로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곤약산지로 천정에 곤약 구멍을 정리하여 겨울철에 저장하기 위해서 아래에 옛날식 난로를 없애야 했다. 여기에서 “이벽에 구멍을 뚫어 난로의 연통구멍을 열어 난로를 개선해 봅시다”라고 이야기 해 보았지만 거기는 귀신이 나오는 문이나, 돈의 신이 있으니 건드리거나 부서뜨리면 안된다고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

어두운 부엌의 벽은 상상이상으로 두꺼웠다.

이때부터 매일처럼 슬라이드를 가지고 도표를 가져, 이러한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1950년부터 1955년 무렵까지 신생활 운동의 캐라번 대의 일원이 되어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연을 했다. 이 마을을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급원의 의견에 찬성해줄 만한 사람을 찾았다. 결국 연소율이 좋은 부엌을 만들기 위해 좌관씨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 강습회가 열리고 각 정촌에 1개소씩 부엌개선 모델부엌이 현비로 설치되었다.

연통이 있는 모델부엌은 연기가 차지 않고 잘 났지만 카미이시군은 전통가옥(일본식 초가집)이 많았기 때문에 화재의 두렵으로 개선부엌은 좀처럼 보급되지 않았다.

점차 한곳 한곳 군내 각지로 밝은 부엌, 연기가 차지 않는 부엌이 생겨나, 생활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부엌은 근대화되었으나 여기에서 만든 식사는 변함없이 쌀과 채소뿐인 식사로 젊은 며느리들은 힘이 없고 과로로 영양부족이 되어 모유가 말라갔다. 며느리들은 뿔이 없는 소가 아니다. 가정은 우수한 자손을 남기는 장이다.」

2.3.2.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유출, 소비재보급

“전국거점을 위한 생활개선기술관의 설치”와 “농가생활백서공표”

식량수급이 안정되면서 일본경제는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한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세의 변화는 농촌이나 농업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소비생활 향상에 맞추어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생산성 향상으로 농촌 지역에도 소득증대가 진행되는 한편 도시공업화의 물결속에 도시는 농촌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 신규대학졸업 취농자의 감소, 청년 노동력의 도시유출이 더욱 심화되어 겸업농가의 증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업인의 건강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61년에 제정된 “농업 기본법”은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에 따라 타산업 종사자와 균등한 생활수준 유지를 농정목표로 하였다. 적재적소에 적합한 작목을 만든다는 적지적작에 따른 작목의 선택적 확대나 산지형성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생활개선 보급원의 활동은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그룹육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지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대상의 중점지도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59년에 농림 수산성은 당시의 지도활동 “실적과 농가생활”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농가생활백서”로 공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생활개선보급사업 추진 시책 및 보다 살기 좋은 농가

생활의 당면 목표”를 제시하여 지역 중점지도방식 등 향후 지도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1958년에 동경의 룩본기에 “생활개선기술관”이 건설되어 생활 개선활동의 전국거점으로 발족하였다. 이 시기에 시설을 활용한 지도활동으로 농업생산활동 증대나 전자제품 보급과 관련하여 가사작업의 공동화, 노동력의 절약화, 피복”주거개선, 유지류, 녹황색 야채,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라는 식생활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2.3.3. 1970년대 지역 생산과 생활환경조화 지향

“보급소의 종합정비와 광역지도에 대한 대응”

동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겸업 농가 증가, 농업과 타산업간 소득격차 확대가 심화되어 농업 노동력의 도시지역 유출, 신규대학 졸업 취농자의 감소로 농업 노동력 감소가 지속되어 도시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의 혼주화 경향이 보인다.

식생활 역시 서양화됨에 따라 쌀수급의 불균형이 시작되어 쌀생산조정이나 벼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작을 도모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 추진, 이외에 모내기나 트랙터 등의 기계화로 농사의 효율화와 노동력 절약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원에 증가 등 다양한 작물과 재배방법의 선택과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의 보급활동체제는 재편정비가 이루어져 196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급소 통합정비가 실시되고 전국 약630개의 보급소로 통합되었다. 아울러 개량보급원의 기능분화를 위해 생활개량 보급원은 “광역담당 보급원”과 “지역담당 보급원”으로 구분되었다. 보급소의 광역화로 지도활동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오토바이나 스쿠터에서 사륜 자동차로 바뀌는 등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65년부터 건강대책, 1966년부터 생활환경대책, 1968년부터 가족노동 적정화 대책, 1971년에는 농촌지역 생활프로젝트 실험 취락정비사업이 1972년부터 농가 고령자 생활개발 시범모델사업이 보급 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2년은 농촌 지역 생활수준 진단조사 및 향상 대책 사업이 실시되어 농가의 생활수준 향상 대책을 각 지구 마다 책정해 개선지도를 실시하였다.

2.3.4. 1980년대 국제화와 계획생산에 대한 대응

지역농업이나 마을만들기(농촌지역개발)와 함께하는 생활개선활동의 추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해리 어업전용수역이 설정되어 농산물을 둘러싼 국제무역교섭에 따라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할당범위 확대나 관세 인하등의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는 GATT의 다국간 국제교섭이나 미일 양국간 교섭에 따라 쇠고기와 오렌지 과즙 등의 자유화가 결정되어 농산물수입 자유화 품목 및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국내적으로 수입농산물이 더욱 증가하고 식생활의 서양화와 소량다품목 소비경향이 진행됨에 따라 쌀이나 굴 등의 생산조정이 한층 강화되어 소비동향에 따른 계획적 생산이 이루어졌다.

유엔은 1975년을 “국제 여성의 해”로 채택함에 따라 일본도 1976년에 국내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농산어촌 여성을 위한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면서 생활개선 보급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다.

농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가주부는 가정관리를 비롯한 농업경영의 후계자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의 복잡화, 고도화에 대응한 건강대책으로 농업생산 환경과 건강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생산과 생활양면에 세부적인 건강 관리지도나 자주적 건강관

리 조직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생활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외에 농촌의 전통 문화나 전통 기술을 발굴, 전승을 비롯하여 생활 환경점검 지도작성, 워크숍 개최 등 지역주민이 참가하고 활동하는 “마을 만들기”추진을 지도하였다.

1986년에는 “장수사회대책 중점계획”이 각의(閣議)결정되어 농촌형 장수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역할개발과 조직활동을 강화하였으며 1988년에 농림수산성은 “u농산어촌 여성의 날”(3월 10일)을 제정하였다.

보급활동의 방법은 1980년부터 지역과 밀착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시각에서 “지역 분담방식”이 실시되어 활동 지역마다 팀을 편성하여 팀내에서 시읍면 창구 담당이 정해지고 광역담당 생활개량 보급원이 바뀌고 총괄 생활개량 보급원이 설치되었다.

2.3.5. 1990년대 남녀공동사회참가에 대한 대응

1993년에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교섭이 합의되는 등 국제화가 진행되고 국내적으로는 농촌 고령화, 과소화 진행, 후계자 부족으로 식량자급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2년에 식료의 안정공급,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환경 부하의 경감을 고려한 환경보전형 농업추진,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의 정비나 도시와 농촌의 교류추진 등 농촌진흥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식료-농업, 농촌 정책의 방향”(신정책)이 책정되었다. 같은 해에 “새로운 농산어촌의 여성 2000년을 향해서”가 1995년은 “남녀 공동 참가 2000년 비전-2000년 계획”이 책정되었다.

“농업노동”, “농가경영”, “농산물 이용” 및 “농촌환경”의 네 부문이 설정되고 부문 분담제가 도입되면서 농촌생활 환경개선이나 농업 경영부문에 대한 여성의 능력발휘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다원적 기능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 가족구성원의 취업 조건

이나 역할 분담, 생활,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상호결정을 실시하는 “가족 경영협정”의 보급 추진 이외에도 농촌여성의 기업 그룹육성, 기업활동의 지원이나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농업경영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개량 보급 원과 생활개량 보급원의 호칭 구분이 폐지되어 하나로 일원화되었다.

2.3.6. 2000년대 소비자 시점의 중시

“국제화·정보화의 발전에 음식, 생활의 안전, 안심의 확보”

21세기(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IT기술이 업무와 생활속에서 보다 가까워지고 경제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1999년에 식료안정공급 확보, 다원적 기능 발휘로 농업의 지속적 발전 및 농촌 진흥 등의 4대 기본이념을 기본으로 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남녀공동참가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2005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식생활 혼란, 영양불균형으로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젊은층의 생활습관병 증가가 심화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이 빈번한 가운데 환경, 에너지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이 급선무이며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카본뉴트럴인 “바이오매스”의 이활용이 주목을 받았다. 용혈성 대장균 0157, 광우병(BSE), 고병원성 조류독감, 미등록 농약사용, 식품의 허위표시, 농산물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음식이나 생활안전에 신뢰가 무너지면서 생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식량과 농업과 농촌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농정도 “소비자에게 중심을 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2005년에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식료자급율의 향상 및 생산하는 “농업과 소비하는 음식(食)”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농업,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농업 향토음식 교육(食育)이나 지산지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주민이 소비한다 라는 시각, 둘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소비한다는 시각, 셋째 전국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국민이 소비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신토불이와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는 원래 지역이라는 두번째 의미에 비중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전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4. 구마모토현의 생활개선보급사업

1965년 이전까지의 농가식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1956년에는 공급열량의 67%를 쌀이나 보리 등 곡분질에 의존하였으나 1965년에는 곡류가 감소(1965년-54%, 1975년-52%)하는 한편, 설탕, 수산물, 축산물이 증가하여 식생활에 대한 요구도 양적인 요구에서 질적 요구로 변화하였다.

또한 요리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스턴트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식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가계의 식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등의 비율은 1965년에 약 40%에서 1975년에는 30%로 대폭 감소하였다.

2.4.1. 자급율 향상을 높이기 위한 자가텃밭에 충실

1971년부터 4계절 자가산 채소텃밭 만들기가 활발해져, 공동육모 추진이 실시되었다. 목제로 만든 물고기 상자에 브로콜리를 심어 농업개량

보급원에게 재배기술 강습을 받았다.

당번제로 비료 등의 관리작업을 실시한다는 이이디어가 공동육묘를 성공적으로 이끈 핵심이었다. 재배기술의 교환과 발전을 위해 1973년부터 직접 해보려는 의욕을 보여준 생활개선그룹을 중심으로 가정텃밭대회가 각지에 전개되었다.

1그룹이나 1부락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마을, 지역내, 농협 등이 협력하면서 지역전체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채소종류의 증가에 따라 녹황색 채소확보에 기여하였다.

1975년 후반에는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 지역생산물의 지역내 소비 확대를 꾀하여 학교급식 제공이나 비농가와의 대화가 장려되었다. 또한 천막시장이나 아침시장 개설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 지역 전통요리나 고향의 맛을 중요시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각 지역마다 발굴하는 등, 식문화의 계승보급도 조직되었다.

1970년부터 실시된 종합생활개선지도사업은 현내 농가주부의 약 30%가 빈혈상태에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리기만이 아니라 체력측정기, 식품첨가물의 모형 등 보급용 기구를 갖춘 『산들바람』이 현내를 돌며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였다. 당시는 요리시설이 없는 지역도 많아 이들 강습회는 지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풍요로운 식생활 추진에 기여하였다.

1975년에 들어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하여 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는 충족되게 되었다. 그러나 칼슘, 비타민A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대책으로 하여 하루에 8시간 수면, 8종류의 채소(가능한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지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내용은 구마모토현내의 생활개선그룹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어 균형 잡힌 식생활의 실현과 생활의 계획화에 큰 성과를 초래하였다.

가정텃밭의 추진이 활발해지고 한편으로 쌀 생산조정정책으로 전작작

물(채소나 대두)의 활용이 문제가 되어 농산가공조직이 활발해졌다. 발의 콩이라 불리는 대두의 영양가치를 재평가하여 된장, 두부 등의 가공소가 조직되게 된다. 젊은 층일수록 일반적으로 가공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가공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어머니의 맛』은 소비자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가공량의 증대는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벤트에 대한 전시출품도 활발해졌다.

안정된 가공과 판매활동을 위해 가공소의 건설 등의 측면에서 관계기관의 원조나 개량자금 등도 활발해졌다. 방부제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안전한 가공식품인 것을 선저하면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추진되었다. 농산가공품은 일반적으로 농가주부의 부업이며 대량생산에는 맞지 않지만 많은 된장이나 각종 절임류를 가공판매하는 그룹이 생겼다.

1977년에는 구마모토현내에 12시정촌에 14개소이던 가공소가 1988년에는 현재 31시정촌 40개소로 증가하였다. 1965년부터 1975년 무렵 쌀과잉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개선화동에서도 쌀 소비확대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도시근교에서는 소비자에게 선전하기 위한 신흥단지에서 쌀축제나 다양한 시정촌의 이벤트에 행정이나 농업관련기관, 소비자 단체가 연계하여 영양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상공회와 연계하여 생산자와의 의견교환회나 합동연수도 실시되었다.

1977년부터 농립수산성은 쌀을 기초로 하여 타식품을 조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추진을 실시하였다. 1984년에는 구마모토현 쌀소비확대추진연락협의회가 결성되어 위탁사업으로 생활개선그룹이 쌀 소비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

이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이 연계하여 국민전체의 식량인 쌀을 재인식하여 쌀소비 확대를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으로 이 운동으로

쌀소비확대에 대한 연계활동, 연락조정이 보다 긴밀해졌다.

1987년 9월에 총리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쌀의 이미지로 「건강에 좋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생산자 가정에서는 「간식으로 김밥」 「한그릇 더」운동이 실천되고 재인식도 확산되었다. 쌀을 기조로 하여 계절성을 살린 균형 잡힌 식품구성의 달성이나 지역에 전승하는 고향의 맛을 계승하면서 그 지역의 풍요로운 식생활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보급활동의 실적을 토대로 차세대에 대응하게 되었다.

2.4.2. 식생활 관련 활동

구마모토현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활동은 크게 ① 식생활개선, ② 공동취사 추진, ③ 「산들바람」으로 순회에 따라 식생활개선, ④ 8·8·1운동의 전개, ⑤ 일본형 식생활 추진과 쌀확대운동으로 구분된다.

생활개선그룹을 중심으로 한 집단육성은 1949년부터이고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농가생활의 문제점이 많고 집단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보급원 일인당 담당호수가 3,000호에서 4,000호로 많으며 이러한 상황의 근거에는 개별적 대응으로는 질과 양의 양자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1965년이 되면 담당지구내에 농밀지도지역(200호-400호)가 설치되고 보급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농밀지역의 중심이 된 것이 생활개선그룹이었다. 생활개선그룹은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집단으로 육성된 것이며 생활개량보급원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점차 그 수를 증가해 갔다. 구마모토현에서는 1949년에 미후네마치에 제1호 그룹이 탄생하고 1966년에는 구마모토현 생활개선실행그룹 연락협의회가 결성되고 전국연락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1966년에는 제1회 구마모토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1985년에 들어서 생활개선그룹이나 농촌여성의 농산가공활동도 큰 전개를 맞이하였다. 지역이나 우리집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자급을 향상을 꾀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위한 농산가공활동에서 지역 활성화를 향한 특산물 만들기의 활동이 급전개하고 있었다.

당초에는 농업제나 산업제 등의 이벤트 참가가 주였으나 지역주민이나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아 상시가공을 희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농업진흥의 일환으로 정(마을)의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인 특산물 만들기를 꾀해온 행정지원도 받아 각지에서 농산가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이들의 후계자가 된 것이 농촌여성이나 고령자인 농산물 가공그룹이다.

1988년 7월에 제3섹타의 (주)구마모토현 상품계획센터(1994년에 (사)구마모토현 특산진흥협회에 흡수합병)이 10월에는 농축산가공의 최신 가공기기·설비 및 시험연구기재를 구비한 구마모토현 식품가공연구소가 차례로 개설되었다. 지역특산품의 상품화나 유통촉진을 꾀하는 소프트적 측면, 농산물 가공시험연구 및 지도의 하드적인 측면에서 양거점의 정비가 실시된다. 이들 기관은 지역농산가공의 개발, 품질향상, 아울러 상품화나 판로확대에 크게 공헌한다.

식품가공연구소가 주최하는 가공기술이나 지역식품정보 등의 연수회에서는 농산가공 그룹원은 적극적으로 출석하였다. 또한 가공, 유통기술의 상담이나 신규가공품의 시작의 장으로 식품가공연구소를 활용하여 가공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개발사업이 현단독 사업으로 전보급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 지향에 대응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특산화함에 따라 지역농업의 진흥과 건전한 농가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구마모토현 식품가공연구소」를 기술개발의 거점으로 하여 특산화하여 시작됨

토나 연구과제 제언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가공기술의 개발을 꾀하였다.

또한 1989년에는 현내 농산가공그룹의 조사결과와 60의 가공그룹 소개 기사를 「지역자금에 따라 풍요로운 식생활과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며-생활개선운동이 이루어온 농산가공의 추진상황」을 주제로 하여 정리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식품가공 연구소에서 농산가공 그룹원이나 생활개량보급원의 가공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한편 각 농업개량보급소에는 매년 대상지역과 농산물을 바꾸어 지역의 생활개선그룹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개발된 특산품은 1992년 3월에 구마모토현 농업공원 컨트리 파크에서 개최된 「구마모토현 농업페어」에서 「교류의 장-농산가공시작품-」으로 코너를 설치하고 전시하여 내원자에게 앙케이트를 받아 평가를 받았다.

이들 중에서 1991년 구마모토현 가공식품 콩쿨에서 금상을 수상한 칠성정의 「바삭바삭 시금치 콩」이나 나츠키정의 「무우 유자향 말이」, 사카모토마을 「가즈라 두부의 된장절임」 등, 각지에서 인기 있는 특산품이 태어났다.

농산가공 그룹 중에는 발전과 함께, 가공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으로 성립하여 자신들의 수입확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을 얻어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추진에는 지역사회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기차게 빛나며 행동하는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활동으로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2001년 구마모토현 농산어촌 여성비전」이 목표로 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농촌여성그룹 기업지원사업의 추진은 각종 가공콩쿨에서의 평가, 농산가공그룹의 현황, 지역가공관계 경기회의 결성이 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직판시 활동에서 직판시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콩쿨 조직부분에 참가한다.

농산어촌 식문화 진승활동의 전개로는 전승요리의 정리, 전승기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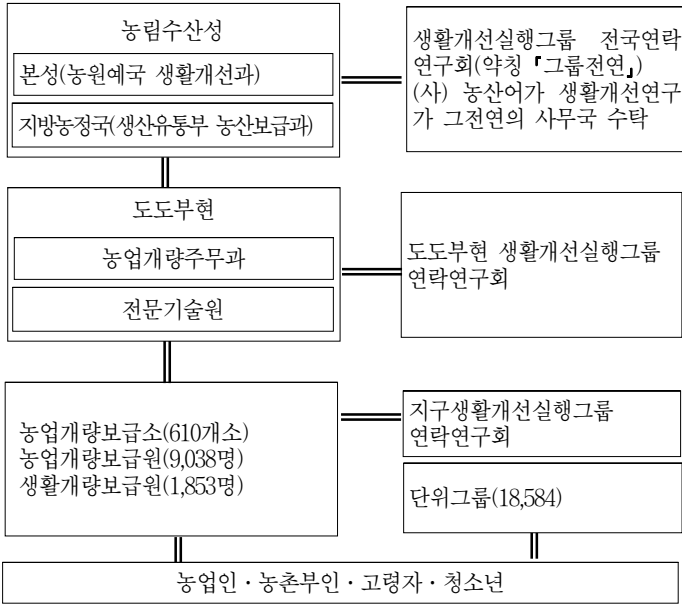
등록, 활동, 식어메니티 쿡쿨 출품, 전국식문화 교류프라자에서 전시, 계발 등을 들 수 있다.

2.5. 생활개선그룹활동

도도부현별 그룹수와 그룹원수는 1986년 시점의 생활개선실행그룹수는 전국에서 18,584, 회원수는 274,028명이며 생활개량보급원 1인당 약 10 그룹으로 그룹수, 회원수는 감소경향에 있다.

그룹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농업종사자의 감소」 「타산업 취업 등에 따른 그룹활동의 지속, 결성이 곤란」 「그룹원의 고령화에 따른 활동의 정체」 등이 이유로 들 수 있으며 근년 농산촌 사회의 겸업화, 혼주화, 고령화의 진전, 농민의 의식이나 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공동과제 설정의 곤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불안, 비농가출신 젊은 며느리가 있는 농가, 농촌생활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동료만들기를 바라는 소리도 있어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개선 실행그룹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동이 필요하다. 가고시마 현과 같이 1986년도에 그룹육성, 강화를 생활개량보급원의 과제로 한 결과, 그룹이 200개 이상 증가한 현도 있다. 이는 그룹원이 모이는 다목적 시설이 현내에 정비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마모토현에서는 1980년의 481그룹, 5,571명이 1986년에는 490그룹, 4,879명이 된다. 1980년부터 1986년의 전국 도도부현별 그룹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생활개선실행그룹의 조직과 원조체제



2.5.1. 생활개선연구그룹과 농촌여성의 지역활동

1955년경까지 농촌집락은 대부분 농가였으나 비농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농촌은 특히 도시근교 지대에서 택지화와 겸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농가가 농촌집락에 증가하며 오늘날까지 농가는 소수파에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개선그룹으로 혼주 화사회에 어떻게 대응할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쪽에서 소리를 걸지 않으면 길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요리강습회나 발리볼 연습에 비농가의 주부를 초대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부녀회 조직은 부녀회, 농협부녀회, 생활개선그

룹 등의 조직이 있다. 부녀회는 전전의 국방부녀회 등의 흐름을 따라 지자체의 하부조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지역의 모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은 농가, 비농가를 불문한다. 농협부녀회는 소위 농협의 한 조직이다. 이들에 대해 생활개선그룹은 보급소 계통의 조직이라 할 수 있으나 동료와의 교류, 음식이라는 공통테마가 확실한 자주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생활개선연구그룹에 들어가면 도시락 반찬만들기나 이불에 솜 넣기 강습회를 하면서 농촌여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국의 생활개선연구대회에 참가하여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된장 만들기를 한다. 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당시의 생활개선보급사업의 근본이념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조직회원은 증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각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형식상으로는 경합이나 혼란은 생기지 않으나 각 그룹간 교류가 향후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카미나 가와현 요코하마시의 오오쿠마지구등 공민관을 거점으로 하여 부녀회, 생활개선그룹이 공동으로 학습회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 절에서는 문헌에서 보는 전국각지의 생활개선연구회와 보급원의 당시의 활동을 정리해 둔다.

그중에서도 현재 일본에서 농촌관광의 선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이타현과 이와테현의 생활개선연구그룹에 대해 다루어보며 당시의 생활개선연구그룹 활동과 농촌관광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아울러 구마모토현 생활개선보급사업의 조직이나 생활개선그룹의 현황에 대해 2007년 5월에 실시한 생활보급원의 인터뷰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5.2. 구마모토현 생활개선그룹활동

1979년 12월말 현재 구마모토현 생활연구그룹 연락협의회 그룹수와 인원수는 11개 지구 503그룹이며 그룹원수는 9,162명으로 구마모토현 농촌여성의 생활개선그룹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3〉 구마모토현 생활연구그룹 연락협의회의 그룹수와 인원수(1979년 12월말 현재)

협의 회명	담당 보급 소명	단위그룹명				그룹원수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熊포	熊	26	30	31	26	260	321	554	258
宇城	宇城	61	63	68	62	852	839	883	643
玉	玉	21	23	28	27	318	319	380	371
鹿	鹿	47	51	51	27	618	516	486	396
菊	菊	24	24	26	27	273	257	292	289
阿郡	阿	28	38	38	53	538	518	480	480
上益城郡	上益城	45	45	47	37	671	659	660	410
鏡		62	63	62	-	875	815	784	-
芦水區	芦	14	14	14	-	357	337	356	-
球	球	12	13	13	17	141	150	169	202
		123	130	125	78	3,425	2,957	4,118	798
合計		463	494	503	-	8,328	7,688	9,162	-

1977년도 구마모토현 생활개선그룹 연락협의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으로 전국이 사회, 구주지역 생활개선 그룹 교환회, 리더연수회, 제1회 현 임원회, 생활추진개발대회, 전국실적발표대회, 현부녀협의회, 기관지 「현련 소식지」 발행, 관계기관단체와의 연락협조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실시한다. 장소도 현, 후쿠오카, 동경 등 외부와의 교류가 왕성해진다. 1977년도 당시 구마모토현 생활연구그룹 연락협의회의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1979년도 생활개선그룹 연락협의회를 보면 회원이 당시 5,101명으로 1인당 50엔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전국협의회, 보급협의회, 기관지 『츠타』발행과 더불어 수입 등, 국가나 현의 지원보다는 자기부담에 따른 활동이 활발해진다.

「공동취사는 1955년부터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현청에서 한 것이 1962년, 1963년. 구조개선사업으로 제1회 구마모토현 농업계획이 생겼다. 농업기본법이 1961년, 당시는 우선 농가사람들의 건강유지가 농립수산성 정책사업의 목적이었고 달걀을 먹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다.」(M씨)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는 칼로리 섭취가 쌀에 편중되었다. 정원에 채소 등을 키워 균형을 지켜서 먹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마모토시 금봉산 주변에서도 담당할 적이 있을지도 20여명이 채용되었다. 어디를 대상으로 지도할 것인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생활개선그룹. 이곳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면 주위로 파급된다.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달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1960년, 1961년.」(YS씨)

「가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공동조리를 해야 한다고. 전체를 재인식하자는 것이 생활개선.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나의 축은 건강, 2번째는 합리적인 가정경영, 거기에서 시대에 맞는 청소년육성, 마지막이 인간관계.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운영할 수 없으므로 4가지를 전부 교육하였다.」(NG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관계 문제도 있었다. 당시에는 며느리를 농업노동력으로 생각했다. 목욕 등도 주부는 마지막에 들어갔으며 이후 모텔리제이션이 진행되어 며느리가 차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벽이 조금 변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상하였지만 횡적인 관계도 되었다.」(NY씨)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농림수산성이 확실하게 각 현에 지시를 내려 건강관리 특별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상은 논농가가 50호, 과수가 50호, 축산이 50호, 채소가 50호 약 200호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 농작업과 경영, 3가지 방향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경영대책을 진행하였다. 1년간 4개소, 4년간 사업이므로 최종적으로 16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매년 농림수산성에 보고하였다. 당시는 See에서 시작되어 Plan, Do로 실시하였다. 파급효과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였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실시하였다. 고령자의 역할을 위해 구조대책사업이라는 것도 시작하였다. 언제나 집안에서 있으면 젊은이들에게 반발이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 지금의 창업이 연계되게 된다.

이것이 축적되어 지금이 있다. 보급원과 함께 열심히 일해 왔다. 초기에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관혼상제의 간소화로 결혼식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 새로운 생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고 개선해 나가고자 했다. 결혼식을 마을회관에서 해도 좋겠네 라고 말한 적도 있다.」

「아마쿠사라는 농촌에서 1959년경 마을회관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이것은 바로 신생활이며 내가 보급원이 된 것은 25세, 25세인데도 이렇게 큰 요리를 만들고 내가 직접 사진도 찍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가면 건강한 분들이 그 무렵은 선생님에게 신세를 졌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나는 잊었지만 된장 가공지도를 한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YS씨)

「1960년 무렵부터 지역형 식생활추진대책은 지금 이야기 하는 지산지소. 오구니와 룩분, 성남의 3개소 지역을 결정하였다. 지역에 있는 것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여 추진해도 감자와 양파정도 밖에는 할 수 없다. 지역 감귤을 배급하려 했으나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

가 되어 전부 구마모토 시장에서 사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감자와 양파만으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휴경밭에서 만든 된장만이라도 제공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사업 그자체가 그해에 끝나 좀체 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시 지역 정장들이 지역농산물을 가공해 달라는 요청이 현재의 지산지소나 지역형 식생활로 이어진다.」(NG씨)

「지역의 산직활동과도 연계되어 도시와 교류도 시작하게 되고 보급원도 1농가 1농가씩 갈 수 없어 생활개선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생활개량보급원은 현재는 보급원으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구마모토현의 경우 특히 엄격해져 보급센타에 한사람씩 정도 밖에 없어졌다. 보급원은 현재는 지역진흥국내의 개량보급과에 있으나 지역에서 어느 쪽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영양사가 보급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더 어려워졌다. 헬시 메이트가 초등학교에서 지산지소를 하는 등 이전에는 보급원이 해왔지만 지역에 보급원이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 헬시 메이트는 시정촌에서 교육을 받아 활동이 활발하다.」

「2000년도에 식생활지침이 생겨 헬시 메이트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보급원은 지금도 직접 농가에 간다. 보급원 수가 줄어 한사람으로 그 지역을 전부 담당한다.

원래 보급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다.」

2.5.3. 아마구치현의 생활개선보급사업

도도부현의 농업진흥계획에는 생산면만 중시되고 농가나 농촌여성의 생활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래는 아마구치현의 보급조직의 변화추이인데 아마구치현의 보급조직은 광역체제를 취하지만 중지구제에 따라 농민과의 접촉이 소원해져 보급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평가로 13보급소 30지소라는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생활개선보급사업의 발족당시 생활개량보급원은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① 넓고 얇은 활동으로는 생활개선의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점 ② 전후의 농촌에서 생활개선의 문제해소에서 개개의 농가보다 집단이 좀더 효과적이었다는 점 ③ 집단에서 배워가며 농업인의 주체성을 가지도록 할 것 ④ 소수의 생활개량보급원이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도하는 것은 집단화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 등으로 농업인을 집단화(그룹화)하여 지도하는 활동방법을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생활개선실행그룹은 농산어촌에서 가까운 생활문제해결을 공동목표로 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는 실천집단이며 지역의 생활개선활동의 선구적 역할을 다해 왔다. 그룹 규모는 문제의 공통성, 대화나 공동활동의 용이성에서 평균 1그룹 15명 정도로 구성된 소집단이다. 하나하나의 생활개선실행그룹은 시정촌, 농업개량보급소의 관할구역, 도부현, 전국에서 단계별로 모여 연락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일본 농업연구소 「생활개선보급사업에 대하여」 농업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개선그룹은 본래 스폰서를 갖지 않는 자발적인 동료집단이라는 점, 상부상조나 리더가 집단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집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2.5.4. 오이타현의 생활개선그룹 활동

오이타현은 일촌일품운동이나 농가민박, 수학여행 방문지 등 농촌관광의 선진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오이타현의 농촌여성이 전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생활개선운동에서 지역활동을 해오고 있는가를 시대의 다양한 환경이나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1976년 일본농업연구소의 「농업현황조사」보고서의 생활개선보급사업에 따르면 당시 오이타현의 생활개선개량 보급원은 36명으로 타현에 비

해 평균연령이 젊고 활동의욕도 강하였다. 생산과 생활의 조화에 따라 건강하고 밝은 농가생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농업개발보급소는 12개소로 98,000호의 농가에 대해 생활개선그룹 338개, 고령자그룹 26개, 젊은 부녀회 30개로 조직이 대응하고 있다. 1978년 무렵의 아지무(현 우사시)의 농업은 쌀이 주요 수입원으로 10년 전에 개발한 포도밭이 있다. 호수 2,880호 중 농가는 2,249호, 이 중 전업농가가 394호로 전국평균보다 전업율이 높다. 이것만으로 농작업은 여성에게 부담을 주어 건강장해가 문제가 되었다.

정에는 생활개선실행그룹이 11개 있는 참가자는 106명이다. 또한 40세까지 농가의 젊은 부녀자가 만든 젊은 부녀회도 있어 가정관리지식향상, 체력만들기, 문화적·사회적 활동 등을 해왔다. 남향지구에서는 부녀회 85명, 생활개선그룹 15명, 젊은 부녀회 12명이 건강관리, 식생활개선, 요리강습, 농산물 가공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활동거점인 『부녀의 집』은 전세대가 분담금을 내고 국가와 정에서 조성을 받아 초등학교의 낡은 숙직실을 개조, 확장하고 영림서가 건축자재를 기부하고, 지역소방단이 담당하였다.

2.5.5. 이와테현의 생활개선그룹과 지역활동

오이타현과 마찬가지로 최근 농가민박이나 워킹홀리데이에 따른 마을 만들거나 농촌관광으로 유명한 이와테현에 있어서도 생활개선운동을 통한 농촌여성의 지역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야나기다 쿠니오의 『토오노 이야기』(1910년)으로 알려진 이와테현 토오노시는 총인구 약 32,000명, 60%가 농가로 논이 약 2,000헥터, 밭이 1,000헥터, 과수원과 뽕나무밭이 200헥터, 목초지가 약 700헥터로 농업조 생산액은 59억 엔 중 쌀이 25억 엔, 담배가 17억 엔이다.

이곳은 부녀회 『제비꽃회』가 활동하며 구 청세(아오사세)마을의 빈내

마을에서 1973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계기는 지역 마을회관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때까지 마을에서는 각호를 돌며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역 농가 25호가 출자하여 자력으로 집회시설을 만들었다. 이 공민관에서 우선 여성 18명이 건강문제를 공부하려고 제비꽃회를 만들어 요리강습회 등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여성들의 자주적인 움직임은 점차 주변에 파급되고 자주적인 그룹이 많이 생겨났다.

아울러 1977년에는 이들 그룹이 모여 「사회생활연수그룹 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토오노시 담당 생활개량보급원은 여성 한사람이었다. 공수 마을에는 1959년 4월에 설립된 여성그룹 「미토사회」가 있어 그룹 만들기를 계기로 역시 농번기의 과로로 병원에 다니는 여성이 많아 가사노동의 경감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전호에서 실시한 공동취사는 여성의 휴식시간확보로 연결되었다. 또한 지역에 생활개선센터가 생긴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룹활동의 경과를 다음과 같다.

〈표 4〉 이와테현 생활개선그룹의 활동내용

연 도	과제	성과
1959~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취사, 공동작업에 따른 농번기의 건강관리 • 가계부 기록과 자금채소의 계획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의 경감에 따라 축적된 피로가 없어지고 농작업이 수월해졌다 • 공동취사 전호참가 • 매월 1회 휴식의 날을 정했다
1965~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의 건강관리 • 침구의 개선일용품의 공동구입에 따른 가계비의 절약과 생활자금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관정 등에 따른 전호 건강관리의 식을 높인다 • 벗짚 이불을 없애고 벗짚 매트만들기로 침실개선 • 일용품의 연간필요량을 알아서 필요없는 구매가 없어졌다 • 공동구입 수익으로 그룹원의 수공 만들기로 방석을 센터에 기부 • 마을 환경미화를 위해 냇가, 센터청소, 화단을 정비한다

연 도	과제	성과
1975~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식을 재현하고 어린이들에게 농촌의 장점을 전한다 • 농가다운 수공의 식생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행사에 떡을 만들어 고령자나 어린이, 3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 자급채소를 재인식하게 된다 • 점심식사 간식, 토산품으로 떡을 만들어 이용 • 타그룹에 떡만드는 방법을 소개 • 쌀의 재인식, 소비확대연구

자료: (재) 일본농업연구소 1979 『농업현황 조사보고서』, 생활개선고급사업에 대하여, P43.

또한 생활개량보급원과의 협력도 긴밀해졌다. 이와테현에서는 농업개량보급소가 17개소 있으며 각 보급소에서는 최소 2명 경우에 따라 5,6명의 생활개량보급원이 배치되었다. 총수는 69명으로 시정촌수가 62개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1시정촌에 1명 비율로 충족되며 산간부 등의 25시정촌에서는 주재제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농업개량보급원, 생활개량보급원과 지역과의 일체감이 강하다.

마을의 생활개선운동의 거점은 공민관(우리나라의 마을회관) 등의 집회소로 현아래 3,400개 마을의 53%는 공민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높다. 생활개선그룹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들 공민관 등의 활동거점의 여부가 중요한 핵심이 된다.

2.6. 생활개선활동이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한 활동사례

전국 보급센터에 협력을 얻어 2006년에 실시한 『농촌여성의 창업활동 실태조사 개요』에 따르면, 2005년도의 농촌여성이 하는 창업수는 전국에서 9,050건이며 이중 그룹경영이 64%를 차지한다. 활동내용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이 75%, 아침시장 등에서 판매, 유통이 44%를 차지하며 음식과 관련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 5〉 농촌여성이 하는 창업활동내용

조사연도	농업생산	식품가공	식품이외의 가공	판매유통	도시와의 교류	서비스사업	기타	불명
2005	1,421 (15.7)	6,816 (75.3)	343 (3.8)	3,999 (44.2)	995 (11.0)	55 (0.6)	42 (0.5)	7 (0.1)
2006	1,259 (14.5)	6,436 (74.3)	350 (4.0)	3,981 (45.9)	955 (11.0)	54 (0.6)	39 (0.4)	11 (0.1)

자료: 농림수산성 구주농정국 2007년 내부자료

판매금액을 보면 연간매상 300만 엔 미만이 59%를 차지하며 규모는 영세하며 1,000만 엔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 60건 증가하였다. 그룹경영 구성원수는 10명 이하 그룹은 3,032건으로 전체의 53%이다. 법인화로는 344건으로 전체 4%이며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이 많다. 또 여성기업(창업)가수의 상위 10도도부현은 아키타현(439), 미야기현(407), 구마모토현(375), 이와테현(355), 니가타현(332), 후쿠지마현(324), 치바현(321), 홋카이도(317), 야마가타현(315), 오이타현(3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활동 그룹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고령자 활동그룹수(60세 이상)

조사연도	그룹수 합계 (60세 이상)	주로 생산·가공·판매활동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주로 노동력보완 활동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주로 농작업 체험지도화 등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기타 활동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2002	6,177	4,362	213	142	1,460
2003	6,486	4,525	216	149	1,596
2004	6,537	4,635	189	124	1,587
2005	6,135	4,475	108	106	1,446
(b)/(a)	93.9	96.5	57.1	85.5	90.9

자료: 농림수산성 구주농정국 2007 내부자료

구마모토현내 각지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문헌을 참고로 하여 이들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특징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원봉사로 복수그룹이 연계한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마쿠사군 아리아케정(현 아마쿠사시)에서는 생활개선그룹, 노인회, 청년단 등이 연계하여 택배를 실시하였다. 노인회에서는 유희지를 활용하여 특산품인 감귤재배를 비롯하여 택배편에 장식이나 대나무 잠자리를 넣어 소비자에게 고향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청년단은 설용 장식을 접수받아 보육원의 원아들은 종이나 도토리 줍기를 하였다. 농가에서는 스스로 주변에 있는 자원에 대해 현금수입 확보와 연계하였다.

또한 마시키군 세이와무라(현 야마토정)에서는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조건을 살린 농림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 마을, 농협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독특한 음식의 고향만들기』의 활동이 실시되었다.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부의 생협과 연계하여 우유, 농산물, 가공품 등을 직판하고 소비자를 초대하여 현장에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농산가공그룹이 하는 수공 레스토랑 경영도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시키군 야메쵸(현 야마토정)의 유목 지구는 현내에서도 유명한 유자 산지였으나 20~60대의 농촌여성 16명이 자금을 출자하여 농업개량자금의 용자를 받아 가공공장과 직판장을 건설하였다. 전에는 밭에 버려졌던 2급품도 가공품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2.6.1. 특산품 만들기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들 사례에서 한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지역자원이거나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에서나 도시주민과의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이 활성화되고 농가생활이 향상된 점이다. 또한 지역성을 살린 농산가공이나 농가레스토랑은 농촌여성이 담당하였다.

이들 마을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초래하였는데 우선 그룹으로 활동함에 따라 협조성을 꾀한 점, 둘째, 겸업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이나 고령자의 기술이 활용된 점, 셋째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붙임에 따라 농가소득이 향상된 점, 넷째 가공소 등이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점, 다섯째, 제1차 산업이 유지되고 유희지가 해소된 점 등이다. 농가나 농촌여성, 후계자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의식개혁과 연결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2.6.2. 생활개선 그룹활동과 농촌여성이 하는 농촌지역개발

농촌여성의 그룹활동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중요한 것은 리더 문제이다.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로 야마구치현 어느 마을의 그룹리더인 A씨를 소개한다. A씨 그룹은 1960년에 13명의 젊은 주부로 결성된 활동경력을 가진 역사 깊은 단체이다. 이 그룹이 있는 지역은 감귤 만들기가 활발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남성은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외지로 나가 있으며 농촌여성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A씨가 리더로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시작하였으나 A씨는 리더로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당시에는 모임자리에서 말없이 들었으나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항상 있었어요. 이러한 풍습을 없애기 위해 7년이 걸렸지요. 그 사이 리더역할을 하던 나는 내자신을 엄격히 하여 회원에 대해 배려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창의를 살리지 못한 농업의 장점이나 강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룹 활동은 반복하더라도 반드시 경험이 진보를 만들어 내었어요. 경험은 힘이 되지요.」

이와테현이 있는 시의 그룹리더인 B씨 그룹은 1973년 3월에 18명의 주부로 발족하였으며 활동경력은 비교적 짧다. 고교시절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해온 B씨 자신은 30대로 단체중에서 가장 젊다. 젊은 리더와 회원들 사이에는 신뢰감과 협조의 친화관계가 생겼다. 오이타현에서는 실질적으로 집단지도성이나 장로제에 따라 마을순회 단체가 운영되고 보급원의 지도를 받고 부역개선 등도 실시하였다.

3. 결 론

일본 생활개선사업은 1948년부터 시작되어 반세기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이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산업사회로 급속히 접어들었다. 현재 일본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1950년대 생활보급원의 농가현장지도와 이를 토대로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시행된 프로젝트 사업에서 현장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생활개선보급사업이 농촌관광이나 농촌지역개발에 미치고 있는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농촌여성의 현금소득확보를 통한 부업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생산, 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과 같은 도농교류시설이나 서비스 산업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농가생산단체와 JA 등의 관련기관 등의 지역경제체와 결합된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며 대규모 마을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셋째, 생활개선보급원들의 국가정책사업과 개인농가를 매개해주는 중간그룹이 정책과 현장의 지속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생산물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농가경영 다각화라는 관점에서 생

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농가사업으로 점차 농가의 산업이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 산업이 도시산업의 형태와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농가산업의 활성화는 도시산업과 달리 지역에 토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생활개선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지도사업에서 현장과 정부, 농업인의 파트너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近畿農政局. (1983). 『農村婦人のむらづくり活動—生活改善グループから』 p.4.
- 佐藤寛・安藤和雄. (2001a). 『戦後日本の生活改善運動と途上國の農村開發』 p.11.
- 生活技術研修館. (1986). 『農家農村生活改善普及事業』.
- 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 (2005). 『交流相談會報告書岩手縣遠野市』 p.71.
- 日本農業研究所. (1979). 『農業事情調査報告書—生活改善普及事業について』 p.70.
- 農林水産省. (2007). 『農林水産基本データ集』.
- 農林水産省. (2006). 『農山漁村の女性に關する中長期ビジョン懇談會報告書』.
- 農林水産省. (2006). 『第80次農林水産省統計表(2004~2005)』.
- 農林水産省. (2007). 女性普及課の内部資料.
- 農林水産省 女性普及課. (1952). 『第1回農山漁家生活改善實績發表大會』.
- 農山漁村改善研究會. (1963). 『生活改良普及員の手記より』.
- 農林水産省. (2007). 『農山漁村の女性に關する中長期ビジョン』 内部資料.
- 農林漁業体験協會. (2001).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實態調査報告』 p.7.
- 農林漁業体験協會. (2001b). 『日本型グリーンツーリズム實態調査報告』 p.8.
- 農林水産省. (2007). 生活普及課による内部資料.
- 平松守彦. (2005). 『21世紀の地域リーダーへ』 p.69-71.
- 三浦祥子. (1987). 『虹を追う群像大分の大山まちづくり』.

논문투고일: 2008. 11. 06

1차수정일: 2008. 12. 05

게재확정일: 2008. 12. 15